

#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 광양벤처밸리 빌드업 캠프 출범 전문가 멘토단, 10개 기업 육성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광양제철소는 전남지역 내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 핵심 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2024 광양벤처밸리 빌드업 캠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12일 광양 라희호텔에서 진행된 빌드업 캠프는 전남지역에 본사가 있는 창업 6년 미만의 기업 중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초기 창업자와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빌드업 캠프는 이들 기업의 사업모델을 고도화시켜 향후 투자유치 매력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빌드업 캠프에는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창업자 보유 역량 △팀원들의 전문성 △아이디어의 차별성 △시장 진출 가능성 등 다각적인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전남지역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 10개가 참여하게 됐다.

이차전지 소재와 IT서비스,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이들 기업은 오는 11월까지 벤처투자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받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육성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빌드업 캠프 종료 후에는 별도의 성과 공유회를 열고 참여기업 간 IR 발표회를 진행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시간과 팀별 멘토단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멘토단은 매칭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진단해 이들의 기업의 강점을 분석하고 향후 멘토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도 진행했다.

고관봉 포스코 동반성장그룹장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을 발굴해 단기간 집중 빌드업을 통해 투자유치,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 우수기업으로 성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 라희호텔에서 전남지역 내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 핵심 벤처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2024 광양벤처밸리 빌드업 캠프'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광양벤처밸리 조성에 필수적이다"며 "이들 기업이 강소·우수 벤처기업으로 '빌드업'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창업을 꿈꾸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멘토링하는 '체인지업 캠프'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포스코벤처지원단' 운영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전남 스타트업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의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김현근 기자



제28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에서 김문희 명창이 판소리부문 대상을 받았다. 구례군 제공

## 국창 송만갑 판소리대회 대상에 김문희 명창

구례군은 최근 구례문화예술회관과 동편제 판소리전수관에서 제28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는 구례 출신의 국창 송만갑 선생을 기리고 국악의 발전을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가 주관했으며, 판소리와 고법 두개 분야로 진행됐다.

판소리 분야에는 초·중·고등부와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 등 총 6개 부문에 130명의 소리꾼이 참가했다. 고법 분야에는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명고부 등 4개 부문 63명의 고수가 참

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판소리 분야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은 김문희(41·경기 군포)씨가 선정, 상장과 함께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고법 분야 명고부 대상에는 이수진(38·부산)씨가 수상하고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국 단위 경연대회인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를 통해 전국의 명창들이 모여 기량을 뽐내고, 우리 소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우리 소리의 발전과 계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 보성군 '악취 민원 제로화' 결실...민원 대폭 감소

2020년 27건→올해 7건 '뚝'

보성군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악취 민원 제로화' 사업들을 통해 상습 악취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악취 민원 발생이 많았던 보성읍의 경우 전체 악취 건수가 2020년 27건에서 올해 7건으로 줄었다. 축사로 인한 민원을 제외하면 기타 악취 민원 0건을 기록했다.

여름철 보성읍 내에서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했다. 관련 부서의 악취 저감 노력으로 2020년 79건이었던 전체 악취 민원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1건으로 감소했다.

대표적인 악취 저감 사례는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이다.

보성을 우산교차로에서 장거리 교차로까지 2.1km의 미세먼지 숲길을 조성해 악취 유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산책 코스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군은 사업의 가치와 효과를 인정받아 2022년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

농축산과는 악취의 가장 큰 요인인 축산 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64개의 농가에 10억원 규모의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 분뇨처리 지원 등을 추진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10개 사업장에 악취 방지 시설을 지원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의 부속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발생되지 않는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돼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했다.

또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악취 저감 탈취제를 살포하고 악취 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시 신속 대응했다. 그 결과 2020년 이래로 매년 악취 발생 민원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 광양시, 18일까지 이륜차 출장 정기검사

광양시가 오는 18일까지 한국교통신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추진한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배출 허용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이륜자동차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

다.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6일 오전에는 옥룡면, 오후는 봉강면, 17일 오전은 태인동, 오후는 금호동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18일은 출장 검사 추가 필요 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이며, 휴식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다.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 수수료(카드 가능)를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광양=김현근 기자

## 클릭! 고향속으로



### 담양소방서, 찾아가는 이동 안전 체험교실

담양소방서는 담양 동초등학교와 월산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이동 안전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지진·화재 대피 체험 △소화기 시뮬레이션 △심폐소생술 실습 등 생활민중형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험하며 재난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윤예심 담양소방서장은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경험을 통해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적십자사 장흥군지회,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대한적십자사 장흥군지회는 최근 대덕읍 덕촌항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환경 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지구회원 50여명이 참여해 방치된 스티로폼과 어망, 대나무 발 등 폐어구 10여톤을 수거했다.

홍숙자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생활 터전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화순드림스타트, 가족사랑 한마음 운동회

화순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화순초등학교 한마음관에서 가족사랑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가족 80여명이 참석한 운동회는 정팀과 흥팀으로 나눠 훌라후프 통과하기와 풍선탑 세우기, 낙하산 릴레이 등을 실시했다.

이날 운동회는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을 경험하면서 아동들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신체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진로·직업 체험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마술쇼·버블쇼는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선화 가정활력과정은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뛰어놀고 즐기면서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